

사상의 번역, 번역의 사상: 번역을 통해 본 강정인의 정치사상*

공진성 | 조선대학교

| 국문요약 |

정치사상사 연구와 번역은 떼어 수 없는 필연적 관계를 맺고 있다. 정치학자 강정인의 경우, 그의 많고도 넓은 연구에서 번역에 대한 관심이 특히 두드러진다. 이 글은 한국의 대표적 정치 학자이자 번역자인 강정인이 무엇을, 어떻게, 왜 번역했는지를 살펴보고, 그의 번역이 가지는 학문적 의미를 강정인의 정치학이 던지는 핵심 질문인 '민주주의'와 '서구중심주의 극복'과 관련해 평가한다. 한국 사회의 근대화와 민주화에 대한 강정인의 지향과 관심은 필연적으로 앞서 근대화하고 민주화한 서구의 사상을 번역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것이 불가피하게 한국 사회를 어느 정도 서구화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강정인은 그 부분적 서구화 과정을 거쳐 한국이 궁극적으로 사상적·학문적 주체성을 획득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또한 강정인은 한국어로 번역된 학문이 설령 그 출처가 서구의 것이더라도, 영어로 하는 학문이 귀족정체를 지향하는 것과 다르게, 민주정체를 지향한다고 생각했다. 번역이 소수가 지식을 독점하는 것을 막고 지식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에게 번역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서구중심주의 극복의 핵심 도구였다.

주제어 | 강정인, 번역, 정치사상, 서구중심주의, 한국정치학, 학문장

* 이 논문은 2021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다. 부족한 논문이지만 이 글을 올해 칠순을 맞는 은사(恩師) 강정인 교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바친다.

I. 서론

정치사상사 연구와 번역은 떼어 수 없는 필연적 관계를 맺고 있다. 정치사상의 역사 자체가 사실 번역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번역에 힘입어 고대의 문헌들이 현대에까지 이어지고 있고, 다른 언어로 기록된 다른 문명권의 정치적 생각들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 그러나 번역의 의미와 가치는 쉽게 간과되곤 한다.

서양 정치사상사의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12세기 유럽에 고대 그리스의 사상이 아랍 세계를 통해 번역되어 전해짐으로써 사상적 혁명이 일어났고(해스킨스 2017, 295 이하),¹⁾ 16세기 독일에서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가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함으로써 천 년 동안 유지됐던 기독교 세계가 분열하기 시작했으며,²⁾ 그로 인해 촉발된 종교 전쟁의 끝에 근대적 세계가 탄생했다. 이 근대적 서양을 번역하면서 동아시아의 근대가 시작되었다는 것 또한 잘 알려진 사실이다.³⁾ 해방 뒤 한국에서도 “새로운 국가 건설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자 했던 이들에게 번역은 하나의 무기”였다(박지영 2018, 4).

세계를 위해 번역하는 전문 번역가가 아닌 이상, 학자로서의 번역자는 번역을 통해 세상에 대한 지식인들 간의 해석 경쟁에 뛰어들고, 그럼으로써 세상에 개입한다. 이때 자신이 번역하는 저자와 책의 선택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서양 정치사상사에서 대표적인 예는 17세기 영국의 정치철학자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가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Thucydides)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1628년 영어로 옮겨 출간한 일일 것이다.⁴⁾

정치학자 강정인의 경우, 그의 많고도 넓은 연구에서 번역에 대한 관심이 특히

-
- 1) 그에 앞서 중세 아랍세계에서 고대 그리스 사상이 번역을 통해 폭넓게 수용되었음이 또한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구타스(2013) 참조.
 - 2) 이와 관련한 매우 인상적인 해석은 사사키(2012), 59쪽 이하 참조.
 - 3) 이에 대해서는 마루야마·가토(2000), 하울랜드(2021), 그리고 김범수 외(2023) 참조.
 - 4) 홉스에 대한 투키디데스의 영향에 관해서는 Münkler(2014), 19, 32-34, 98쪽 참조.

두드러진다. 그가 출간한 총 50여 권의 책 가운데 20여 권의 책이 번역서이다. 전문 번역가가 아닌 학자가, 어문학자가 아닌 사회과학자가 이렇게 많은 책을 번역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여기에는 그의 학문적 관심과 입장이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언어로 대표되는 문화의 차이를 강하게 의식할 수밖에 없게 하는 번역이 서구중심주의의 극복이라는 그의 정치학적 관심을 낳았는지, 아니면 반대로 서구중심주의의 극복이라는 그의 정치학적 관심이 번역을 그 한 가지 수단으로 채택하게 했는지 정확히 구분해 말할 수는 없지만, 번역과 그의 정치학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대표적 정치학자이자 번역자인 강정인이 무엇을, 어떻게, 왜 번역했는지를 그가 쓴 ‘역자 후기’를 바탕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⁵⁾ 그리고 또한 그 학문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강정인의 정치학이 던지는 핵심 질문인 ‘민주주의’와 ‘서구중심주의 극복’과 관련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강정인의 정치학을 그의 번역 작업과 관련해 살펴보고 그의 번역이 가지는 의미를 평가하는 일은 한국 정치학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학자들의 번역이 한 역할을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할 것이다. 이하 본문에서는 강정인의 번역 작업과 역자 후기에 나타난 그의 생각을 시간순으로 살펴봄으로써 그의 사상의 변화와 함께 초기부터 발견되는 고유의 문제의식을 확인할 것이다. 또한 그의 정치사상이 동시대의 다른 정치적 사상 경향들과 비교해 어떤 차별적 경향을 보이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5) 강정인은 매우 풍부한 후기를 자신의 번역에 덧붙였다. 이 점에서도 그의 번역은 독보적인데, 그의 자의식이 강하게 반영된 적지 않은 분량의 역자 후기들은 이 논문의 소재가 될 정도로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II. 강정인의 번역과 사상

1. 남한 지식인의 자의식

강정인은 1987년 5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후 한국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면서 수많은 책과 글을 번역했다. 그의 첫 번째 번역서는 아그네스 헬러(Agnes Heller)의 책, 『마르크스에 있어서 필요의 이론』(인간사랑, 1990)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대학에서 마르크스주의가 활발히 논의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아직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기 전 상황에서 강정인은 자본주의 또는 자유주의 사회가 보장한다고 주장하는 개인의 '이익(interest)'과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사회가 보장한다고 주장하는 '필요(need)'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물으며,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이 책을 번역했다(강정인 1990, 5-7).⁶⁾ 학생들의 사회주의적 지향 또는 적어도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이 강하던 시절, 한편으로는 그런 지향과 관심에 부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데올로기적 긍정을 넘어 비판적 인식을 가능케 하려는 그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⁷⁾ '아그네스 헬러'라는 저자의 선택 자체가 율킨이의 그런 의도를 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헝가리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헬러는 대학과 당에서 제명되고 복권되었다가 다시 제명되는 고초를 겪었다. 그는 달리 말하자면,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등에'였듯이, 사회주의 국가의 '등에'였다. 강정인은 그를 “비공론적(非空論的)이고 비교조적인 마르크스주의자”라고 평가한다(10). 그가 우리에게 “단순히 마

6) 이하에서 괄호 안의 숫자는 앞서 언급된 책의 쪽수를 가리킨다.

7) 여기에서 드러나는 인정과 구별의 욕구는, 사실 그것은 모든 학자에게 공통된 욕구이겠지만, 이어지는 강정인의 학문 여정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는 서양 정치사상 연구자 및 교육자로서 한편으로는 서양 정치사상에 대한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양 정치사상에 대한 연구가 단순한 수입과 훈고(訓誥)의 수준을 넘어서야 함을 강조하며 자신을 다른 학자들과 구별하려고 한다.

르크스로 되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를 넘어서서 그로부터 벗어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10). “근본적인 과제는 마르크스에 도전하고 비판함으로써 그에게 갇히는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주의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라는 강정인의 말은 당시의 그의 생각을 드러내 보여준다(10). 마르크스주의에 관한 책, 그것도 마르크스의 혁명 이론이나 다른 어떤 이론이 아니라, ‘필요 이론’에 관한 아그네스 헬러의 책을 선택한 것은 이런 그의 생각의 반영일 것이다.

한국에서 서양 정치사상사를 가르치기 시작한 지 4년째 되는 해에 『플라톤의 이해』(문학과지성사, 1991)라는 편역서를 내면서 그는 서구 정치사상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자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묻는다.

서구 정치사상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것이 21세기의 길목에 접어든 한국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그리고 한국인인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바꾸어 말하면 나의 이러한 작업이 한국의 정치 현실에 과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제3세계의 지식인인 나에게 이러한 지적 작업은 어떤 개인적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가? 간단히 말해 이러한 작업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가? (강정인 1991a, 11)

이렇게 물으면서도 강정인은 “지극히 우연히 주어진 [한국인으로서의] 삶과 [지식인으로서의]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자신의 태도가 혹시 “인간의 부질없는 욕망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반문한다(11). 이처럼 강정인은 자신의 활동이 무엇인가 의미 있는 활동이기를 바라는 인정과 구별의 욕망을 스스로 의식하면서도, 어쨌거나 그 활동이 정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기를 소망했다.

강정인은 서구 정치사상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신의 활동의 정당성을 먼저 “자연과학 이론과 구별되는 정치 이론의 특성”에서,⁸⁾ 그리고 한국 사회의 “서구

화와 전통의 단절” 탓에 불가피하게 생겨나는 서구 사상 연구의 필요성에서 찾는다(11). 강정인은 그 연구 작업의 시작이 플라톤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서구 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플라톤 사상에 대한 이해가 서구화를 겪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도 절실히 요청된다”는 것이다(18).⁹⁾ 그리고 “국내에 플라톤의 원작들은 다수 번역되어 있으나 플라톤 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길잡이로서 플라톤 사상에 대한 한글 해설서는 별로 눈에 띄지 않”고, 그래서 “플라톤 사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에 관한 해설서를 역서로서 내게 되었다”고 자신의 번역 작업이 가진 의미를 밝힌다(18). 플라톤 사상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과 그것을 돕는 해설서의 현재적 부족에 근거해 번역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강정인은 플라톤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설서를 쓰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이미 옮긴이가 쓸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잘 쓴 해설서나 주석서가 많이 있고 나름대로 덧붙일 얘기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 책들을 번역하기로 결심한다(강정인 1991b, 251). 이런 의미에서 그에게 번역은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기존 창조물의 단순한 옮김에 불과하다. 어쩌면 그것은 그의 의식 속의 학문장(academic field)이 서양의 학문장과 분리된 한국어 학문장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진 영어-한국어 학문장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강정인은 자신이 직접 해설서를 쓰는 경우 “평가하는 나의 사상의 폭과 깊이가 드러나는 데 불과”하고, “그 평가

8) 연구 대상인 자연이 불변하는 반면 정치는 변하며, 자연과학자가 자연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만 정치학자는 더 나아가 정치를 바꾸려고 하고, 이론적 합의가능성이 자연과학에 비해 정치학은 동일 문화권에서조차 낮다고 강정인은 설명한다(강정인 1991a, 11-14).

9) 플라톤 사상을 이해하는 것이 한국인에게도 필요하다는 강정인의 생각은 그러나 “결국 우리는 모두 그리스인이야”(After all, we are all Greeks)라는 말이 함의하는 바와 다르다. 강정인이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서』(아카넷 2004)의 모태가 된 한 논문을 그의 은사 한나 피트킨(Hannah Pitkin)에게 보냈을 때 피트킨은 그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편지의 말미에 그와 같은 문구를 남겼다고 한다(강정인 2007a, 339). 강정인에게 플라톤 사상의 이해는 궁극적으로 서구와 다른 한국의 사상적 주체성 확립을 위한 것이다. 강정인은 플라톤을 그리스와 서구에 위치시키는 만큼 또한 자신을 21세기의 길목에 접어든 남한(한국)에 위치시킨다.

를 통해서 나의 밑천을 드러내는 데 불과”하며, “기껏해야 20세기 후반 서구화의 와중에서 남한의 한 지식인이 플라톤을 어떻게, 얼마나 이해했나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남한의 지성사에서 한 가닥의 의미를 구성할 뿐”이라고 말한다(251). 즉 강정인은 자신의 글이 그저 ‘남한의 지성사에서(만) 한 가닥 의미를 구성’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번역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서양에서 유학한 지식인의 자의식이지만, 서양에서 유학한 모든 지식인이 보이는 않는 자의식이다. 그렇다면 그의 번역은 어디에서 어떤 의미를 구성할까?

강정인은 번역에 적극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는 번역을 언젠가 국산품으로 대체되어야 할 임시방편의 수입품으로 인식한다. 아직 자신에게는 “플라톤 사상에 대한 일반적 평가와 해석을 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서구에서 플라톤에 관한 전문가이거나 서구 정치사상사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의 플라톤에 대한 해석과 평가를 한글로 옮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다(251). “이들의 해석과 평가를 통해서” 어쩌면 학생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이다”(251). 번역 자체를 ‘정치적 사유(political thinking)’의 한 방식으로 인식하지는 않는 것이다. 그러나 강정인은 “위대한 사상가는 매세대마다 각각 다른 형태의 의미와 가치의 옷을 걸치고 부활한다”거나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한 평가는 각 세대의 역사적 임무”라고도 말한다(251). 어떤 사상가에 대해 세대마다 다른 의미 부여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런 작업 자체가 서로 다른 언어들 사이의 번역과 동일 언어 안에서의 (재)번역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문화권과 지역에 따라 다른 학문장에서 다른 의미 부여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는 왜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2. 서양 사상의 대중화와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세 번째로 번역한 책, 『마키아벨리의 이해』(문학과지성사, 1993)를 내면서 강정인은 처음으로 번역이라는 작업의 ‘고통스러움’에 대해 이야기한다. “깨알같이

많은 글자를 지면에 채우지만 이 글은 나의 글이 아니라는 생각이 [자신을] 무척이나 괴롭힌다”는 것이다(강정인 1993a, 286). 강정인은 자기 자신의 글을 쓰고 싶은 욕구를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남의 글을 옮기고 있는 자신의 현 상태를 고통스럽게 느낀다. 비유하자면 “서투리도 자신의 영혼에서 우리나라오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고, 투박해도 내 목소리로 노래하는 가수가 되고 싶”다는 것이다(286). 이런 비유 속에서 번역은 그저 “남의 그림을 복제하는 3류 화가”가 되는 일, “아름답다 하여 그저 남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가수”가 되는 일로 여겨진다(286). 강정인은 번역된 글에서는 자신의 ‘개성’이 숨 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약동하지 않으며, 번역된 글은 “얼마나 원문의 의미와 뉘앙스를 충실히 전달했는가에 따라 평가받을 뿐”이어서, “귀중한 생명을 무모하게 낭비하면서 ‘죽은’ 글을 쓰는 것 같아 때로 허탈감과 자기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급기야 번역 작업을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한다”고 고백한다(286). 그렇다면 그는 왜 지금 또 한 권의 번역서를 펴내고, 이후에도 계속 번역 작업을 병행할까?

강정인은 이미 학자들이나 대학원생 상당수가 원문(영어)을 직접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기껏해야 자신의 번역이 그들에게는 “시간을 절약하는 편리를 제공하는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리라 추측한다(286-287). 그렇다면 번역서는 영어 독해에 익숙하지 않은 학부생 이하의 독자들을 위한 것일까? 정작 그들에게는 이런 책을 읽을 “강한 동기나 관심이 없으리라”고 강정인은 또한 추측한다(287). 1990년대에 마키아벨리 입문서가 번역이든 저술이든 간에 시중에 거의 한 권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을 강정인은 “아직 서양 사상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다원화·전문화되어 있지 않은 데서 연유한 것으로”, 그리고 “서양 사상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아직 소수의 전유물로 남아 있는 데서도 기인하는 것으로” 여긴다(287). 지식의 다원화·전문화, 그리고 민주화에 대한 강정인의 지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강정인은 한국 사회의 ‘근대화’와 ‘민주화’를 위해서도 서구화한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고 있는 “서양 사상의 대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287), 그런 차원에서 자신의 번역 작업에 의미를 부여한다.

즉 현재 대학원생 이상에게는 그저 시간을 아껴줄 뿐이고, 학부생 이하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닐지 모르지만, 서양 사상의 대중화를 위해, 더 나아가 한국 사회의 근대화와 민주화를 위해 자신에게는 ‘고통스러운’ 이 번역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전히 번역에 대한 강정인의 생각은 등가(等價)의 내용을 그저 영어에서 한국어로, 그의 생각 속에서는 더 적절하게, 알파벳에서 ‘한글’로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 그에게서 번역이 지닌 ‘혁명적 힘’에 대한 인식은 엇보이지 않는다. 그가 가장 바람직하게 여기는 것은 “한국 사회의 정치적 경험과 역사적 필요에 비추어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독창적으로 해석하고 비판한 한글[!] 개설서가 출현”하는 것이다(287).¹⁰⁾ 그러나 “외래 문화인 서양 사상이 본격적으로 이 땅에 소개된 연륜이 상대적으로 짧”아서 그런 업적이 출현하기까지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정인의 판단이다(287). 강정인은 서양 사상을 ‘외래 문화’로 인식하고 있으며, 어디까지나 한국 사회가 불가피하게 서구화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배울 필요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의 단순한 모방을 넘어 재구성과 창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그의 궁극적 관심이, 예컨대 레오 스트라우스(Leo Strauss)의 관심과 같은, 초문화적 본질의 탐구가 아니라는 것이다.¹¹⁾ 그런 의미에서 그가 서양 사상을 ‘문화적’인 것으로 간주하면서도(비본질주의), 그 ‘문화의 번역’이 동일한 내용(본질)을 그저 언어적으로 치환하는 일에 불과한 것처럼 간주하는 것이 모순처럼 보이기도 한다.

강정인은 “한국적인 독창성을 지닌 유교와 불교 사상이 발전하고 또한 전통 사상으로 자리잡게 된 배경에는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주로 선진적인 중국 문화

10) 한국어와 그 표기 문자인 한글은 엄밀한 의미에서 다르지만, 일상에서 ‘한글’로 뭉뚱그려 표현되곤 한다. 이 잘못된 개념 사용이 의미심장하게도 번역에 대한 강정인의 도구주의적 생각을 드러내 보여준다.

11) 스트라우스의 ‘텍스트주의적’ 접근은 그런 의미에서 켄틴 스킨너(Quentin Skinner)의 ‘맥락주의적’ 접근과 대조된다. 이에 관해서는 김민혁(2023) 참조. 또한 스트라우스는 가치의 상대성을 인정하며 그것을 사실과 구분함으로써 가치를 지적 탐구의 대상에서 제외한 막스 베버(Max Weber)를 비판한다. 이에 대해서는 박성우(2014) 참조.

를 섭취하면서 중국의 사상을 모방·습작한 반복된 노력이 숨어 있었을 것”이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20세기 한국 사회의 중요한 역사적 당면 과제 중의 하나인 ‘근대화’ 및 ‘민주화’가 서양 사상의 ‘한국화’를 필연적으로 요청”하며, 이를 위해 “상당 기간 서양 사상에 대한 모방과 습작의 과정”이 필요함을 주장한다(288). 한국에서 ‘서양’ 정치사상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의 ‘근대화’와 ‘민주화’, 즉 일정한 서구화의 필요성, 그리고 이를 위한 서양 사상의 수용, 즉 ‘한국화’의 필요성, 그리고 다시 이를 위한 과도기의 번역, 즉 ‘모방과 습작’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번역은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모방과 습작’ 같은 것으로, 그러나 다 커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간주된다. 성숙한 학문이라면 오히려 남의 모방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정인은 훗날 영어 중심의 지구적 지식장 안에서 자신이 성인이 되어 남의 모방(즉 번역) 대상이 되기 위해서도 스스로 자신을 영어로 번역해야 하는 역설을 경험한다.¹²⁾

다시 한번, 강정인은 서양 사상의 ‘한국화’가 소수의 학자나 학생이 원서를 직접 읽어 이해하고 소화하는 방식으로든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한글’로 쓰인 문헌을 통해서 수행될 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민주적으로** 수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288, 강조는 인용자). 비유하자면, 성서에 담긴 신의 뜻을 이해하여 한 사회를 기독교화하는 일이 소수의 엘리트가 직접 성서를 원어로 (또는 라틴어로) 읽음으로써도 가능하겠지만, 성서가 예컨대 ‘독일어’로 번역되어 일반 언중이 쉽게 읽을 수 있을 때 그 사회의 기독교화가 ‘더 효과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강정인이 의식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생각에 번역은 단순히 서양 사상의 ‘한국화’ 과정을 ‘더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더

12) 이와 관련해 주목해봐야 할 것이 지구적 학문장 안에서의 ‘한국’ 사회과학의 발전 전략을 두고 벌어진 강정인과 김경만의 논쟁이다. 김경만이 지구적 학문장 안에서 영어로 보편적 주제를 두고 실력을 다투야 한다는 쪽이라면, 강정인은 그렇게 하면 학문의 종속성만 강해질 것이므로 한국적 특수성을 보편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쪽이다. 이에 대해서는 강정인(2007b)과 김경만(2007) 참조.

빨리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민주적’으로, 즉 엘리트 주도의 ‘한국화’와는 다른 형태로 ‘한국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왜곡과 통속화(vulgarization)에 대해서는 별로 우려하지 않는다. 강정인은 1980년대 마르크스주의 및 좌파 사상의 유행을 예로 들면서 그런 사상의 한국화 과정이 번역을 통해 ‘가속화’되었다고 설명한다. 그것이 “현실 외면의 이론지상주의적 성향이나 교조주의적인 경향” 같은 많은 부작용을 낳기도 했지만, “십 년도 채 지나기 전에 남한 사회의 지적 풍토를 근본적으로 변형시켰다”고 평가한다(289). 그에게 사상의 번역을 통한 사회 변화의 가속에 대한 인식은 분명하지만, 번역에 의한 사상의 왜곡과 통속화에 대한 우려는 약해 보인다. 그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한국 사회의 자본주의 발전이 낳은 내적 모순이 심화되었더라도 그것을 인식하고 타파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할 이론서들이 한국어로 번역되지 않았더라면 그런 운동과 변화가 더뎠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강정인은 번역이 가진 위험성을 지적하기보다,¹³⁾ ‘근대화’와 ‘민주화’를 위해 한국 사회의 ‘서구화’ 수단으로서 번역이 필요함을 오히려 역설한다. 대중이 지식의 소비자가 될 때의 사회적·정치적 효용을 위험보다 더 크게 보는 것이다.

강정인은 또한 사상적 ‘주체성’을 강조한다. 그것을 마르크스주의적 교조성과 대비시키며 옹호한다. 그러나 그런 교조성이 ‘근본적인 것에 대한 추구’일 가능성은 배제한다. ‘주체성’에 대한 그의 강조는 반토대주의적이고 반본질주의적 태도에서 비롯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그것은 또한 자연스럽게 ‘다양성’에 대한 긍정으로 이어진다. “서양 사상의 한국적 수용을 역사적 명제로 승인하더라도, 우파 사상이든 좌파 사상이든 일부 서양 사상을 고집한 나머지 이론적으로 하나의 렌즈에 집착하여 세계를 조망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서양 사상의 렌즈를 통해 보다 풍성하게 세계를 바라보는 균형적인 자세가 바람직하기 때문이다”(290). 그렇다면 과연 강정인은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인식에 관심이 있는 것일

13) 번역이 가진 부정적 위험성이 왜곡과 통속화라면, 긍정적 위험성은 사회의 혁명적 변화일 것이다. 그에 대해서는 역시 사사키(2012) 참조.

까,¹⁴⁾ 아니면 그저 ‘렌즈’의 다양성에 관심이 있는 것일까? 혹시 남의 ‘렌즈’가 아닌 자기 고유의 ‘렌즈’를 가지고 싶은 것은 아닐까?

강정인은 마르크스주의 역시 플라톤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서양 사상의 다양한 흐름 중의 중요한 하나에 불과”할 뿐이라고, 그러므로 그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290). 그가 오히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독자적인 한국 사상의 출현’이다. 이를 위해 ‘균형 있는 섭생’, 즉 “서양의 다양한 사조를 섭취하는 동시에 동양 사상의 재해석을 통해서 우리의 유산을 새롭게 계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는 주장한다(290). 로티가 말하는 ‘창조적 시인’이 되기 위해 그 준비와 견습의 과정으로서 다양한 동서양의 사상적 자원을 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¹⁵⁾ 그러므로 강정인은 자신의 번역이 마르크스주의적 서적이 범람하는 시대에 “서양 사상의 한국화 과정에서 서양 사상의 균형적인 섭취에 기여”하기를, 그리하여 서양 사상에 대한 창조적 해석 작업을 할 미래의 학자를 위한 “디딤돌”로서 기능하기를 바란다(288, 291).

같은 해에 강정인은 『홉스의 이해』(문학과지성사, 1993)를 마찬가지로의 방식으로 펴낸다. 이 책의 「역자 후기」에서 강정인은 당시 “일반적인 사상사 책으로 잘 알려진” 책들을 언급하며, 그 책들에 예컨대 마키아벨리나 홉스에 대한 논의가 30~40페이지 정도 나올 뿐이며, 그런 개설서들조차 “대부분 영국이나 미국에서 쓰인 지 30~40년이 지난 책으로서 고전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또한 낡은 책으로서 영미 학계에서 쌓인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강정인 1993b, 276). 지금까지는 서구 사상의 이해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면, 여기에서는 더 나아가 서구 사상에 대한

14) 강정인이 유학 시절 마키아벨리에게서 얻은 위로에 대해 이야기하며 “외로움은 진리의 빛을 좇는 활동에 숙명처럼 따라다니는 친숙한 그림자로서 방황의 날개를 접고 내 옆에 나란히 눕곤 했다”고 서술하는 구절을 보면 강정인이 근본적 진리를 적어도 한때 추구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강정인 1993a, 295).

15) 미국의 철학자 리처드 로티(Richard Rorty)는 ‘마지막 어휘’를 거부하면서 인간의 삶을 한 편의 시에 비유하여 그 시를 새로운 메타포를 이용해 끊임없이 새롭게 쓰려고 하는 창조적 시인을 ‘아이러니스트’라고 부른다. 이에 대해서는 로티(1996), 145쪽 이하 참조.

‘최신’의 연구 성과를 흡수할 필요성을 또한 제기한다. 그것은 ‘더 나은’ 해석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대적 해석’의 수용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강정인은 당시 한국의 ‘학문적 낙후성’을 이렇게 기록한다.

국내에 돌아와 강의하면서 발견한 것이지만 서구의 고전에 대한 정확한 번역도 많지 않고, 서구 사상가에 대한 기본적인 해설서도 드문 편이다. 국내의 유명 출판사에서 발간한 ‘세계의 사상 전집’류나 단행본으로 나와 있는 사상가들의 한글 번역 고전을 교재로 쓰면서 읽어보면 오역이나 부정확한 표현으로 가득 차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번역 실력의 미흡에도 일부 기인하지만 동시에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훌륭하게 번역된 고전이 드문 것과 이에 관한 좋은 해설서가 없는 것은 서로 악순환의 고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76)

학문적 낙후의 원인을 그러나 강정인은 학자들 개개인의 잘못이나 무능보다는 그저 물질적 생활수준의 향상에 골몰한 남한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찾는다. 그래서 “남한의 학계가 본격적이고 실질적인 연구를 위한 여건과 풍토를 조성할 수 없었고, 단지 그 모양과 형식을 갖추는 데 급급했다”는 것이다(277). 이런 현실에 더해 “국내 학계나 일반 사회가 번역이라는 지적 작업에 관해 그 심각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으로 높이 평가하지 않았”음을 강정인은 또한 지적한다(277). 그래서 사상 고전의 “번역자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았고, 역자들이 일단 번역을 한 후에도 그 역서를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가꾸거나 교정하지도 않았”으며, “다음 세대의 번역자들도 이를 참고로 하지 않고 새로이 번역”함으로써 “과거의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채 매 세대마다 서구의 고전이 고립적이고 반복적으로 번역”되었다는 것이다(277). 강정인은 스스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다. 과거의 번역들을 늘 참조했고, 자신의 번역을 계속 수정했다.

3. 민주화한 한국의 이념적 지평

강정인이 다섯 번째로 번역한 책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까치, 1994)이다. 지금까지의 번역과 달리 처음으로 서양 정치사상사의 고전을 번역한 것이다. 이 번역 역시 대학에서의 교육 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생겨났다. 기존의 번역본이 그리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강정인은 “강의 도중에 한글 번역서를 직접 인용하는 일이 드물어지고 [그] 자신도 한글본을 잘 읽지 않게 되었다”고 말한다(강정인 1994a, 241). 언제부터인가 그에게는 “논리상으로는 구문상으로나 정확하지 못한 문장을 읽는 작업이 ... 짜증스러운 일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241). 부실한 번역에 분노해본 연구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부정확한 번역이 낳는 비효율성을 강정인은 개인적 수준에서만 논하지 않고, 사회적 수준으로까지 확장해 논한다. 수업에서 번역의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 ‘과거에 낭비한 시간’과 ‘앞으로 낭비할 시간’을 합치면 사회적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이다(242). “게다가 그러한 피해와 불편을 감당하기 싫어서 책을 읽지 않는 풍조가 어렸을 때부터 일반 국민에게 조성된다면, 그 보이지 않는 효과가 한 국민의 문화수준 일반에 미치는 폐해”가 지대할 것이라고 또한 강정인은 주장한다(242). 이 지점에서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번역을 포기하고 모든 책을 영어로 읽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집단적으로도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영어공용어화론자들의 생각이 그렇다. 지식의 거래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이다(복거일 2003). 그러나 강정인은 번역포기론 대신 번역진흥론을 주장한다. 번역이 창의적인 작업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학문적으로 크게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오히려 경제적 보상을 통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재능과 진지한 정열이 번역작업을 홀시하거나 외면하게 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242). 이것이 장기적 과제라면, 단기적 과제는 “불필요하고 무모한 시간의 낭비와 그 반복”을 헌신적인 누군가가 중단시키는 것이다(242). 그 일을 자신이 하고자 하지만, 특히 『군주론』의 번역과 관련해서는 한 가지 걸림돌이 있다. 그것은

자신이 원어인 이탈리아어를 전혀 모른다는 점이다.

강정인은 기존의 번역본들, 즉 일역본이나 영역본 등의 중역본들이 가진 ‘이중 오역’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번역에 나서는 것을 주저했지만, 기존의 번역본들이 가진 문제점들이 그가 생각하기에 너무 많아서, 비록 중역(重譯)이지만 그보다는 나올 것이라는 생각에 근거해, 그리고 아직 이탈리아어와 정치사상사 지식을 모두 겸비한 번역자가 나타나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에 근거해 자신의 번역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협업의 가능성은 배제한다. 강정인은 자신의 번역을 차선으로서 정당화하기 위해 두 가지 극단적인 경우, 즉 이탈리아어는 잘 아는데 마키아벨리를 잘 모르는 경우와 마키아벨리는 잘 아는데 이탈리아어는 잘 모르는 경우를 가정한다. 둘 다 잘 아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둘 다 잘 아는 사람이 없다면 차선으로 이탈리아어만 잘 아는 사람이 정치사상사를 모르는 채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정치사상사만 잘 아는 사람이 영역본에 의존해 번역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것이다(242-243). 이 과정에서 강정인은 “원문의 ‘문의(文意)’”와 “사상가의 사상에 대한 지식”을 편의적으로 분리한다(243). 그러나 과연 어떤 사상가의 사상에 대한 지식 없이 그 사상가가 쓴 글의 의미(문의)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가능할까? 모든 대학생이 한글을 아무 문제없이 읽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글로 쓰인 글의 의미를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예컨대 함석헌의 사상을 한국어에 대한 지식 없이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언어와 사상은 사실 한 몸이지 편의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강정인은 자신의 중역본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 둘을 마치 나누어 질 수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그 둘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사상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키아벨리를 잘 모르는 이탈리아어 전문가에 대한 자신의 비교우위를 주장하는 것이다.

강정인은 자신의 중역본이 다른 중역본과 다를 바 없는 중역본이라는, 얼마든지 제기될 수 있는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기존 번역본의 “한글 문체가 현대적인 감각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한다(241). 이는 모든 번역이 꾸준히

재번역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강정인은 자신의 번역 역시, 이탈리아어 원문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문체상의 이유로도 계속 다시 번역되어야 함을 인정한다. 그래서 자신의 번역이 어디까지나 “잠정적이고 과도기적 가치”를 지니며 “과도기적인 임무”만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245). 이 과도기적 임무를 마친 강정인의 『군주론』은 십여 년 뒤 마키아벨리 정치사상 전공자인 김경희의 『군주론』(까치, 2008)에 의해 대체된다.

여섯 번째로 번역한 『현대 민주주의론의 경향과 쟁점』(문학과지성사, 1994)에 붙인 후기에서 강정인은 이 책에 실린 논문들이 “1993년 가을 학기에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서 ‘민주주의 정치사상’ 세미나를 하면서” 함께 읽고 토론한 논문들임을 밝힌다(강정인 1994b, 489). 대학원 수업에서 읽은 논문들 가운데 “특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 것을 엄선하여 민주주의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과 ‘책 읽는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번역”했다고 번역의 목적을 또한 밝힌다(489). 1993년의 시점에서 강정인은 이제 남한의 정치도 ‘민주화’의 길에 접어들었다는 전제하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지닌 문제점 및 한계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탐색”하기 위해 관련된 논문들을 학생들과 함께 읽었고, 또 그것을 번역해 대중에게 소개하고자 한다고 말한다(489). 언제나 강정인은 현재의 한국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그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그리고 또한 변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해줄 서구의 기존 연구 성과들을 골라 학생들에게 읽히고 또 그것을 번역해 대중에게 소개하는 일에 열심이었다. 특기할 점은 서구 사상가들에 대한 개괄적 해설의 글들을 엮어 옮길 때와 다르게 책의 첫머리에 이 주제에 대한 자신의 논문(「세계화 그리고 민주주의의 미래」)을 덧붙였다는 것이다.

1995년 강정인은 자신의 일곱 번째 번역서인 『로크의 이해』(문학과지성사, 1995)를 내놓는다. 기존에 내놓은 『플라톤의 이해』, 『마키아벨리의 이해』, 『홉스의 이해』와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편역한 책이다. 이 ‘이해’ 시리즈는 여기에서 끝나는데,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고 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발효되면서 해외 저작물의 저작권도 보호하도록 국내 저작권법이 1996년 개정됐

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한국 사회가 그만큼 경제적·학문적으로 성장했음을 의미할 것이다.

1996년 강정인은 여덟 번째 번역서로 존 로크의 『통치론』(까치, 1996)을 내놓는다. 중역본이라는 단점을 안고 있었던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와 다르게 강정인은 번역과 관련한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다만 이극찬 교수의 기존 『통치론』 번역을 참조했음을 특별한 비판적 언급 없이 밝힐 뿐이다.

1997년 초 강정인은 자신의 아홉 번째 번역서인 『에드먼드 버크와 보수주의』(문학과지성사, 1997)를 출간한다. 앞서 출간한 ‘이해’ 시리즈와 비슷하게 버크와 보수주의에 대한 신뢰할 만한 해설의 글을 엮어 옮겼으며, 『현대 민주주의론의 경향과 쟁점』에서와 마찬가지로 책의 첫머리에 이 주제에 대해 자신이 1992년 초에 쓴 논문, 「보수와 진보, 그 의미에 관한 분석적 고찰」을 덧붙였다. 강정인이 한국 정치사상사를 묘사하고 분석할 때 사용하는 기본적 틀인 ‘급진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가 지금까지의 번역 과정을 통해 이렇게 드러난다.

강정인이 ‘보수주의’에 대한 소개의 글을 옮기고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고찰하는 자신의 논문을 함께 엮어 출판한 배경에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벌어진 이른바 ‘보혁 논쟁’과 그것의 반강제적 종결 사태가 있다. 한국 사회의 보수-진보 논쟁은 의미 있는 이론적·실천적 결과를 보지 못한 채 사회주의권의 갑작스러운 붕괴로 인해 ‘찾잔 속의 태풍’으로 끝났으며, 한때의 진보적 인사들조차 보수주의가 급속히 확산하는 세계사의 흐름에 편승해 보수 정당에 투항하는 현실로 귀결되었다(강정인 1997, 315-316). 그러니까 이 책의 출간은 3당 합당을 통해 민자당이라는 거대 정당이 탄생하고, 그 당의 후보로서 ‘YS’가 대통령이 되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외친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강정인은 보수(주의)가 현실 정치에서 승리했지만 남한의 보수주의에 대해 먼저 연구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남한의 보수 세력이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보수 이념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그 내용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는 현실에 주목한다(316). 그리고 그런 무이념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구의 보수주의가

어떤 정치 이념을 담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316). 그 후에야 비로소 왜 남한의 보수 세력에게는 스스로 지켜야 할 보수 이념이 없는지를 묻고 따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강정인의 일관된 입장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개념과 사상을 이용해 정치적 삶을 영위할 때, 먼저 그 번역·수입된 개념과 사상이 원래 무슨 뜻이었고 어떤 것이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한국적 현실에 맞게 고쳐 쓰든지 말든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서구를 맹목적으로 추종하자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현재를 긍정하자는 것도 아니다. 의미론(semantics)과 화용론(pragmatics)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4.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서

열한 번째 번역서는 대니얼 부어스틴(Daniel J. Boorstin)의 『탐구자들』(세종서적, 2000)이다.¹⁶⁾ 「유킨이의 말」에서 강정인은 먼저 ‘이 책’을 번역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변명을 내놓는다. 한편으로 강정인은 이 책의 저자가 “특정한 주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전문적인 철학자나 역사가가기보다는 좀 더 일반적인 차원에서 전문적인 연구를 종합·정리하여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는 학자”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한다(강정인 2000, 508). 그러면서도 강정인은 다른 한편으로 “고대 그리스·로마 문명은 물론이고 근대 서구 문명의 지적 유산을 비교적 알기 쉽게 정리”하고 있는 이 책의 번역 필요성을 서구 문명이 “현대 한국인의 삶과 사고를 조형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책이 그 일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로써 다분히 방어적으로 주장한다(509). 그러나 동시에 저자의 시각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부어스틴 역시 많은 다른 서구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서구 중심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509, 강조는 인용자). 물론 그 책임

16) 열 번째 번역서는 랭던 위너(Langdon Winner)의 책 『자율적 테크놀로지와 정치철학』(아카넷, 2000)인데, 역자 후기에 특기할 만한 이야기가 없어서 본문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을 온전히 서구인들에게만 돌리지는 않는다.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이 경쟁적 또는 대안적 시각들을 지금까지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강정인은 “동아시아 지식인들 역시 동아시아의 사상가, 지식인 및 정치가들을 소재로 하여 부어스틴이 자신만만하게(?) 내놓은 『탐구자들』과 같은 책을 출판할 수 있는 지적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509). 그렇다면 번역은 우리의 그런 자각을 위한 거울과 같은 도구가 될 것이다. 훗날 이루어진 강정인의 작업은 서구인들이 먼저 자기의 문화 전통 속에서 시도한 작업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자극을 받고 아이디어를 얻어 한국의 사상 전통 속의 소재를 이용해서 스스로 시도한 것이다. 『인물로 읽는 현대한국정치사상의 흐름』(아카넷, 2019)이 그 한 가지 예일 것이다. 강정인은 “이러한 작업이 동아시아 지식인들에게 즐거운 사명으로 다가올 시대를 기원”한다(509).

열두 번째 번역서는 마키아벨리의 『로마사 논고』(한길사, 2003)이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책은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학문공동체”가 참가한 공동작업의 산물이다(강정인 2003, 654).¹⁷⁾ 이 책의 초판 「옮긴이의 말」에는 번역과 관련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 아마도 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를 『군주론』의 번역과 관련해 이미 했기 때문일 것이고,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은 번역결과물에 중역이라는 약점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할 수는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필요에 따라 영문 번역본 이외에 이탈리아어 원본을 참조”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공역자인 안선재 교수의 “서양 중세문화에 대한 ... 해박한 지식”이 유용했음을 언급하고 있다(653). 그러나 이 번역본이 가진 온갖 미덕에도 불구하고 중역이라는 근본적 한계는 약 15년 뒤 나온 개정판(마키아벨리 2018)을 통해 사실상 인정된다.

한동안 번역 작업이 뜸하다가 2006년 강정인은 먼저 테렌스 볼(Terence Ball), 리처드 대거(Richard Dagger), 대니얼 오닐(Daniel I. O'Neill)이 쓴 『현대 정치사

17) 항상 역자 후기에만 등장하던 안선재 교수가 형식적인 연구책임자가 되어 이 책에서는 공역자로 등장하지만, 실질적인 번역자는 강정인과 그의 제자들이다.

상의 파노라마: 민주주의의 이상과 정치 이념』(아카넷, 2006)을, 그리고 세이무어 마틴 립셋(Seymour Martin Lipset)의 『미국 예외주의: 미국에는 왜 사회주의 정당이 없는가』(후마니타스, 2006)를 제자들과 함께 번역 출판한다. 그의 열세 번째와 열네 번째 번역서이다. 그러나 이 두 책의 역자 후기는 공역자의 한 명인 정승현과 문지영이 각각 썼다.

2007년에 강정인의 열다섯 번째 번역서인 셸던 월린(Sheldon Wolin)의 『정치와 비전 1』(후마니타스, 2007)이 출간된다. 역자 후기에서 강정인은 이 책의 번역 출간을 출판사로부터 제안 받았을 때 망설였음을 밝힌다. 책을 옮기는 데 소요될 많은 시간을 고려할 때 그 자신의 연구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었고, 자신에게 얼마 남지 않은 학문적 여정을 감안할 때 학자로서 자신의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바치는 것이 바람직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다(강정인 2007a, 332). 초기부터 강정인은 학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일부를 번역에 쓰는 경우 자신의 고유한 연구에 충분한 시간을 쓸 수 없는 당연한 현실을,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시간을 쪼개어 번역한 것조차 제대로 업적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지적해왔다. 그런 현실 속에서도 강정인은 꾸준히 번역과 연구를 병행해왔다. 자신의 번역이 한국 정치학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여전히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나라의 많은 독자가 이 책을 읽고 정치 사상이 실로 일생을 바쳐 연구할 가치가 있는 학문이라고 깨닫게 된다면, 옮긴이로서 다소의 위안을 발견할 것이다”(332). 2년 뒤 열여섯 번째 번역서인 『정치와 비전 2』(후마니타스, 2009)가 출간되었고, 다시 4년 뒤 열여덟 번째 번역서인 『정치와 비전 3』(후마니타스, 2013)이 출간되었다. 이 세 권 모두 제자 및 동료와의 협업의 산물이다.

강정인이 열일곱 번째로 출간한 번역서는 켄틴 스키너(Quentin Skinner)의 『마키아벨리의 네 얼굴』(한겨레출판, 2010)이다. 그러나 이 책은 새로운 번역서는 아니고 1993년에 출간된 『마키아벨리의 이해』에 포함된 스키너의 글의 개정판을 옮긴 것이다. 기존의 번역문과 스키너의 개정판 원문을 대조하여 수정하는

작업을 공역자인 제자 김현아가 맡았다.

『정치와 비전』을 완역한 뒤로는 사실상 중요한 번역서는 더 나오지 않는다. 제자 및 동료들과의 공역 작업이 주를 이룬다. 2016년 제자 권도혁과 함께 스투어트 화이트(Stuart White)의 『평등이란 무엇인가』(까치, 2016)를, 2018년 제자 이석희와 함께 마이클 사워드(Michael Saward)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까치, 2018)를 번역 출간한다. 이 책의 「옮긴이의 말」에서 강정인은 “서양 정치사상의 한국화를 위한 작업은 서양 정치사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면서, “그러한 이해에 기여하기 위해 ... 서양 정치사상의 주요 개념에 대한 입문서를 번역, 출간”한다고 그 취지를 밝힌다(강정인 2018, 259). 강정인은 이 두 권의 책이 모두 서구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지만, “영미 또는 서구의 정치철학이 수식어 없는 초기값[즉 그냥 ‘정치철학’]으로 설정될 만큼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한국 또는 비서구 세계 전반의 대세적 현실, 나아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로 운영되는 한국의 정치현실과 정치철학이 그들과 문제의식을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있다는 점 또한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260-261). 그렇기 때문에 서구의 학자들이 서구의 독자들을 상대로 쓴 책을 한국어로 번역해 소개하는 것이 여전히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이 거스를 수 없이 서구화했음을 뜻하는 것일까, 아니면 서구와 한국이 함께 세계화했음을 뜻하는 것일까?

아마도 강정인이 번역자로 참여한 마지막 책은 존 토피의 『여권의 발명: 감시, 시민권 그리고 국가』(후마니타스, 2021)일 것이다. 이 책의 역자 후기는 책임번역자인 이충훈이 쓴다.

그 사이에 강정인은 자신의 책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서』와 『넘나들(通步)의 정치사상』, 『한국 현대정치사상과 박정희』를 영어로 번역 출간한다(Kang 2015; 2017a; 2017b). 이처럼 강정인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21세기의 지구적 학문장 안에서 자신의 ‘성숙한’ 학문이 남의 모방 대상이 되기 위해서도 먼저 자기를 영어로 번역해야 하는 불공평한 현실에 굴하

지 않고 서양 사상의 번역과 수용을 통해 그동안 성숙해진 한국 사상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한다.

III. 결론

한국 사회의 근대화와 민주화에 대한 강정인의 지향과 관심은 필연적으로 앞서 근대화하고 민주화한 서구의 사상을 번역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것이 불가피하게 한국 사회를 어느 정도 서구화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강정인은 그 부분적 서구화 과정을 거쳐 한국이 궁극적으로 사상적·학문적 주체성을 획득하게 되기를 바랐다. 번역은 그 과도기에 필수적인 습작과 모방, 즉 학습의 도구였다.

강정인은 영어와 한국어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의식 속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학문이 설령 그 출처가 서구의 것이더라도, 영어로 하는 학문이 귀족정체를 지향하는 것과는 다르게, 민주정체를 지향한다는 생각을, 즉 소수가 지식을 독점하는 것을 막고 지식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의 민주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동시대의 다른 학자들이 상대적으로 '귀족적' 학문활동을 해왔던 것과 비교된다. 즉 영어/원어로 사상사 고전이나 그 해설서들을 읽고, 단순히 그것을 소개하거나 자신의 해석을 담은 논문과 책을 쓰는 것과 달리(이때 대중은 그 해석의 옳고 그름을 직접 판단할 수 없다), 강정인은 고전을 설령 중역으로라도 가독성 높은 형태로 번역함으로써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 고전에 대한 해석 경쟁에 심지어 원서를 읽을 수 없는 일반 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대중의 '문화적 취향'이 그렇게 높지 않은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기도 했지만, '고급 문화'를 소수의 지식인들이 독점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으며, 일반 대중도 그것을 향유하기를 소망했다. 그럼으로써 서구 사상이 한국화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서구화한 한국 사상이 궁극적으로 세계화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것이 강정인이 추구한

한국의 민주화와 세계화였고, 서구중심주의의 극복 방안이었다. 그 핵심에 번역 작업이 놓여 있었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서구중심주의의 극복에 대한 강정인의 학문적이면서도 동시에 정치적인 지향은 서양 사상의 번역에 대한 그의 적극적 태도에서만 아니라 번역 대상의 선택에서도 드러난다. 동시대의 다른 정치학자들, 특히 서양 정치사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번역한 책들과 비교해 볼 때 그것은 더 잘 드러난다. 정치사상사 통사를 번역한 경우에도 셸던 윌린을 선택한 강정인은 존 플라르나츠(John Plamenatz)를 선택한 김홍명과 비교되고, 레오 스트라우스와 조셉 크랍시(Joseph Cropsey)를 선택한 김홍우와 비교된다.¹⁸⁾ 또한 고대부터 현대까지 비교적 폭넓게 번역한 강정인은 예컨대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을 집중적으로 번역한 서병훈이나 존 롤스(John Rawls)를 집중적으로 번역한 장동진과도 비교된다. 번역 대상의 선택에서 우리는 강정인이 한편으로는 자신이 유학한 미국 버클리 대학의 진보적 시각에 동의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한 사상 가나 사조에 갇히지 않으려는, 그래서 가능하면 다양한 고전과 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소개하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시를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그의 욕구를 엿볼 수 있다.

18)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교수였던 플라르나츠의 『정치사상사』(전3권, 풀빛, 1986)는 마키아벨리부터 마르크스까지의 근대 정치사상사를 인물별로 다루고, 미국 시카고대학의 교수 스트라우스와 크랍시가 편집한 『서양 정치철학사』(전3권, 인간사랑, 2007/2010)는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투키디데스부터 하이데거까지의 ‘정치철학사’를 인물별로 다룬다. 플라르나츠가 근현대 정치이론, 특히 공산주의 사상 전문가라면, 스트라우스는 고전 정치철학 중심의 보수적 반근대주의자이다. 그에 비해 미국 버클리대학과 프린스턴대학의 교수였으며 진보적 민주주의자였던 윌린은 『정치와 비전』에서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정치사상사를 ‘정치’와 ‘정치적인 것’의 지속과 혁신의 관점에서 기술한다.

참고문헌

- 강정인. 1990. “옌긴이의 말.” 아그네스 헬러. 『마르크스에 있어서 필요의 이론』.
고양: 인간사랑.
- 강정인. 1991a. “서문.” R. M. 헤어 외. 『플라톤의 이해』. 서울: 문학과지성사.
- 강정인. 1991b. “역자 후기.” R. M. 헤어 외. 『플라톤의 이해』. 서울: 문학과지성사.
- 강정인. 1993a. “역자 후기.” 켈턴 스키너 외. 『마키아벨리의 이해』. 서울: 문학과지성사.
- 강정인. 1993b. “역자 후기.” 리차드 텍 외. 『홉즈의 이해』. 서울: 문학과지성사.
- 강정인. 1994a. “역자 후기.” 니콜로 마키아벨리. 『군주론』. 서울: 까치.
- 강정인. 1994b. “후기.” 조지 세바인 외. 『현대 민주주의론의 경향과 쟁점』. 서울: 문학과지성사.
- 강정인. 1997. “옌기고 나서.” R. 니스벳 외. 『에드먼드 버크와 보수주의』. 서울: 문학과지성사.
- 강정인. 2000. “옌긴이의 말.” 대니얼 J. 부어스틴. 『탐구자들』. 서울: 세종서적.
- 강정인. 2003. “옌긴이의 말.” 니콜로 마키아벨리. 『로마사 논고』. 파주: 한길사.
- 강정인. 2007a. “옌기고 나서.” 셸던 윌린. 『정치와 비전1』. 서울: 후마니타스.
- 강정인. 2007b. “한국 정치사상 어떻게 할 것인가: 반성과 대안.” 『사회과학연구』 15집 2호, 8-46.
- 강정인. 2018. “옌긴이의 말.” 마이클 사워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까치.
- 구타스, 디미트리 저. 정영목 역. 2013. 『그리스 사상과 아랍 문명: 번역운동과 이슬람의 지적 혁신』. 파주: 글항아리.
- 김경만. 2007. “독자적 한국 사회과학 어떻게 가능한가: 몇 가지 전략들.” 『사회과학연구』 15집 2호, 48-92.
- 김민혁. 2023. “레오 스트라우스와 켈턴 스키너의 마키아벨리 ‘시민군’론 해석 고찰: 정치사상사 연구방법론 논쟁을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33권 1호, 111-131.
- 김범수 · 홍철기 · 이관후 · 송경호 · 김 현 · 김태진 · 김도형 · 소진형. 2023. 『근대

- 일본과 번역의 정치: 대의정체 개념의 수용과 변용』.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로티, 리차드 저. 김동식·이유선 역. 1996. 『우연성 아이러니 연대성』. 서울: 민음사.
- 마루야마 마사오·가토 슈이치 저. 임성모 역. 2000. 『번역과 일본의 근대』. 서울: 이산.
- 마키아벨리, 니콜로 저. 강정인·김경희 역. 2018. 『로마사 논고』. 파주: 한길사.
- 박성우. 2014. “막스 베버의 사실-가치 구분에 대한 레오 스트라우스 비판의 정치 철학적 함의.” 『한독사회과학논총』 24권 3호, 3-34.
- 박지영. 2018. 『번역의 시대, 번역의 문화정치 1945~1969: 냉전 지(知)의 형성과 저항담론의 재구축』. 서울: 소명출판.
- 복거일. 2003. 『영어를 공용어로 삼자』.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사사키 아타루 저. 송태욱 역. 2012. 『잘라라, 기도하는 그 손을』. 파주: 자음과모음.
- 하울랜드, 더글라스 저. 김현 외 역. 2021. 『서양을 번역하다』.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해스킨스, C. H. 저. 이희만 역. 2017. 『12세기 르네상스』. 서울: 해안.
- Kang, Jung In. 2015. *Western-centrism and contemporary Korean political thought*. Lanham, MD: Lexington Books.
- Kang, Jung In. 2017a. *Comparative political theory without borders: a journey across ideological times and spaces*. Seoul: Sogang University Press.
- Kang, Jung In. 2017b. *Contemporary Korean political thought and Park Chung-hee*. London/New York: Rowman & Littlefield.
- Münkler, Herfried. 2014. *Thomas Hobbes: Eine Einführung*. 3. aktualisierte Auflage. Frankfurt/New York: Campus Verlag.

투고일: 2024.02.15. 심사일: 2024.03.26. 게재확정일: 2024.03.26.

Kang Jung In's Political Thought of Translation in his Translation of Western Political Thought

Gong, Jin Sung | Chosun University

The study of the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and translation have an inseparable relationship. In the case of Korean political scientist Kang Jung In, his interest in translation is particularly noticeable through his numerous academic works. This article examines what, how, and why he translated, and evaluates the academic significance of his translation in relation to his key questions, 'democracy' and 'overcoming Western-Centrism'. Kang's intention and interest in the modernization and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n society inevitably led to the translation of the ideas of the previously modernized and democratized Western societies. Although this meant westernizing Korean society to some extent, Kang believed that Korea could ultimately acquire ideological and academic independence through the partial westernization. Kang also thought that, even though the knowledge translated into Korean was from the West, the academic activities in Korean were aimed at democracy, unlike those in English at aristocracy. He thought that translation would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democratization of Korean society by preventing the few from monopolizing knowledge and allowing the many access to it. For him, translation was a key instrument for democratization and overcoming Western-Centrism in South Korean society.

Key Words | Kang Jung In, Translation, Political Thought, Western-Centrism, Korean Political Science, Academic Field